



인간존중이념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오픈마인드 속에서 피어난 무재해 -한전기공(주)울산사업소-



▲ 이 재 진 소장

따뜻한 봄햇살을 머금은 울산의 바다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탁트인 바다를 미끄러지듯 빠져나오는 작은 배 한척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속 깊은 시름까지도 잊게 만든다. 배를 따라 꼬리를 무는 하얀 물보라는 우리내 안전과 그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다. 배 뒤에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물보라가 일지 않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안전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안전 없이는 회사가 운영될 수도, 운영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하이얀 물보라처럼 한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보다 발전되고 앞서는 사업소를 만들기 위해 안전에 관한 한 자기 자리에서 그들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한전기공(주)울산사업소(이재진 소장)에서 그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찾아갔다.

■ 인간 존중을 최우선으로 무재해 사업장 구현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인 한전기공(주)은 1974년에 설립되어 30여년동안 우리나라 전력 설비 및 산업 설비를 정비하며 사회저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바지하여 온 발전설비 정비기술 전문회사로, 현재 본사와 전국 33개의 사업소에서는 총 4,900만 kW 의 발전설비 및 기타 산업설비에 대한 고품질 책임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울산사업소는 우리나라 수·화력사업소 중 3·4번째의 큰 규모를 자랑하며, 30여년 동안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역사깊은 사업소이다.

총 15호기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사업소는 그 규모면에서도 매우 넓고 방대하여 사업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재진 소장은 1968년부터 지금까지의 오랜 전력관련 업무경험을 발판 삼아,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교육, 깨끗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우선으로 꼽는다. 「인간 존중을 최우선으로 무재해 사업장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사업소장 안전경영방침을 제정·공포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기본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장구 착용 및 활용을 생활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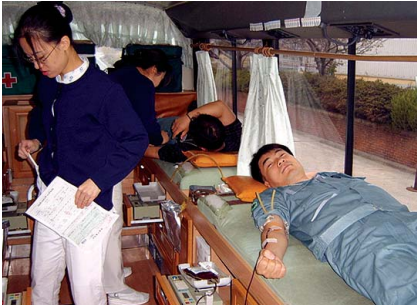
또한, 매일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각 조별로 조장 중심의 작업 전·중·후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 초빙과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 기술자에게 교육 시키는 물론이다.

특히, 사업장 곳곳에 마련된 흡연실은 사고 발생의 방지는 물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근로자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담배는 각 개인에 따른 습성이며 기호이기에, 일정 장소에서 흡연토록 하여 근로자들이 무심코 버리는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를 방지하고, 동시에 쓰레기 문제까지 해결하여 쾌적한 일터, 일하고 싶은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 안전의 시작은 대화

한전기공(주)울산사업소에서는 서로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주축이 되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칭찬이나 상은 조희나 정규 행사 등 공개석상에서 하지만, 질책이나 충고는 관리자와 근로자 둘만이 알 수 있게 쯤


집중 안전 포커스



속말을 하거나 따로 대화를 나누는 등 근로자의 심리적인 요소까지 배려한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다.

안전의 시작은 대화이며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는 이재진 소장은 근로자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자주 갖는다. 안전이야말로 근로자의 몫임을 강조하며,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인간존중이념을 실천해 나가도록 정해진 규범이나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들은 근로자들이 작업함에 있어 미처 모르고 지나치거나 간과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핍으로써 진정한 무재해가 이룩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안전을 통한 개인의 안녕과 건강은 물론 가정과 직장, 이 사회의 행복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외에도 울산사업소는 본사 주관의 「한마음 대회」에서 우수 사업소로 선정되는 등 이웃 사랑의 실천과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비뿔수룩 돌아가라」는 옛 선조의 말씀처럼 서두르지 말고, 정해진 방법이나 절차를 지켜 업무에 임하고,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 유해·위험 상황의 공정 및 작업지연보다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안전작업절차 미준수를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는 이재진 소장의 말에서 물보라처럼 묵묵히 안전에 임하는 한전기공(주) 울산사업소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현재 추진 중인 KOSHA 18001 인증 획득과 2005년 8월 예정인 무재해 4배 달성은 물론, 「세계적인 플랜트 종합서비스 제공 회사」로의 선도사업소로 도약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성호연기자〉

